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4. 11. 22.(금)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멕시코 진출기업 영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멕시코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우리 기업들도 완성차·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출해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인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USMCA 재검토, 중국 우회수출 대응 등 정책변화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對멕 투자금액(신고기준) : ('22) 7억불(15위) → ('23) 9억불(10위) → ('24.2Q) 14억불(7위)

정인교 본부장은 "멕시코는 멕시코 신정부('24.10.1) 뿐만 아니라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양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멕시코 연방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州)정부와도 협력채널을 구축·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에 이어 베트남(11.25(월))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업계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사 무 관 사 무 관	조석인 (044-203-5634) 성상훈 (044-203-56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4.11.22(금) 07:30~08:50 (총 80분)

ㅇ (장소) 서울 롯데호텔 36F 샤롯데 스위트룸

□ 참석자

ㅇ 업계 : 완성차기아차, 차부품HL만도, LG이노텍, LS이모빌리티, 현대모비스, 철강포스코

ㅇ 관련기관 : KIEP,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ㅇ 정부 :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중남미신시장협력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미주통상과장, 주멕시코대사관상무관

□ 세부 일정

※ 언론공개 범위: 모두 발언까지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7:30-07:33 ('3)	•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07:33-07:48 ('15)	• 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멕시코 중심)	KIEP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07:48-08:48 ('60)	• 자유 토의	참석자 전원
08:48-08:50 ('2)	•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